

2026 필리핀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가. 정부 현황	0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0
3. 주요 이슈 Pick	14
가. 신정부조달법(IRR 초안) 국산우대·녹색공공조달(GPP) 기조 반영	14
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진전 및 GSP+ 지위 유지	14
다. 무현금 결제 확산과 전자지갑 일상화(모바일 QR 결제·국경 간 연계 추진)	15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7
가. 시장 특징	17
나. 무역	20
다. 산업	25
라. 투자	27
2. 유망 산업	30
가. 데이터센터·클라우드(코로케이션·하이퍼스케일)	30
나. 전기차(EV)·배터리·충전인프라	31
3. 협력 기회	33
가. 통상·G2G	33
나. 프로젝트	35
다. 공급망(자원개발)	36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38
2. 진출전략	40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49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51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52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3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3. 주요 이슈 Pick	14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요약)

- '26년, 물가상승 둔화와 고용 유지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이 경기 하방을 방어하며, 점진적으로 수출·투자 정상화 전환 전망, 반면 전기요금·식량 가격·환율 등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국면
 - 민간소비는 기존 누적 물가상승의 여파로 필수재 중심의 지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 안정화로 점차 회복될 전망, 단, 내구·선택 소비는 비용 요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될 가능성 상존
 - * 7월 CPI 0.9%(6월 1.4% →), 6월 실업률 3.7%
 - 설비·건설투자는 세제개편 후속지침의 정착으로 민관협력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유입되나, 인허가·전력·토지 등 절차가 속도를 좌우
 - * 4월 FDI 순유입 6억 1,000만 달러, 구성: 부채성자금 5억 2,200만 달러(+24.3% YoY), 지분투자 400만 달러(-94.1% YoY)
 - 산업전반 전자주문 시스템 도입 확산으로 생산 변동성 완화, 부품·자본재 수입 확대는 가동률·납기 안정에 긍정
 - * 6월 총 교역 180억 달러(+16.3% YoY), 수출 +26.1%, 수입 +10.8%

□ (호재 요인)

- 가격 안정과 내수 방어
 - 물가상승 압력 완화로 실질구매력 방어, 임금 조정·고용 유지가 필수소비 지지
 - * 7월 CPI 0.9%('19.10월 이후 저점대), BSP '26년 물가전망 3.3%
 - 결제·통관 등 디지털 전환 확대로 거래비용·행정비용 완화, 영세·중소 유통의 매출 안정에 기여
 - * 제조업 PMI 7월 50.9 → 8월 50.8(확장 유지), 6월 수출 +26.1%
 - 인프라 기반시설 사업에 정부·민간의 예산 지속 집행과 세제개편 후속지침 정착 등으로 설비투자 추진 여건을 보강
 - * 4월 FDI 순유입 6억 1,000만 달러(+7.1% YoY), 다만 부채성 비중 확대

□ (부진 요인)

- 비용·대외 여건 불확실성
 - 전기요금 인상*, 식량 가격 변동**, 연료·운임 재상승 가능성이 가계·기업의 비용 부담을 확대

* 전기요금 인상: 7월 +P0.4883/kWh, 8월 +P0.6268/kWh

** 필리핀 정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수입 60일(9.1.~10.30.) 중단 행정명령(EO 93)

- 주요국 수요 둔화와 환율 변동 확대 시, 기업은 수출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대응하며, 월별 주요 경제지표 변동성 확대가 우려
- 지분투자 부진 및 차입 중심 자금조달 등 장기 기업의 가치 하락 및 성장동력 약화, 전력망·항만·통관 병목 등으로 투자·생산이 지연될 위험

* 4월 FDI 지분투자 -94.1% YoY(400만 달러), 차입 중심 유입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108.7	110.0	113.9	113.9	114.8	115.8	117.3*	118.7*
명목 GDP	십억 달러	376.82	361.75	394.09	404.28	436.62	461.62	495.00*	528.00*
1인당 명목 GDP	달러	3,510	3,330	3,580	3,620	3,870	4,089	4,220*	4,450*
실질 성장률	%	5.9	-9.5	5.7	7.6	5.6	5.7	6.0*	6.1*
실업률	%	5.1	10.4	7.8	5.4	4.4	3.8	3.9*	4.0*
소비자물가 상승률	%	3.3	2.4	3.9	5.8	6.0	3.2	3.9*	3.5*
재정수지(GDP 대비)	%	-0.8	3.2	-1.8	-7.3	-6.1	-5.7	-5.3*	-5.0*
총 수출	백만 달러	70,334	63,879	74,569	78,930	72,923	72,984	N/A	N/A
(對韓 수출)	백만 달러	3,208	2,536	2,574	3,520	3,126	3,564	N/A	N/A
총 수입	백만 달러	107,375	85,687	117,308	137,977	126,106	127,382	N/A	N/A
(對韓 수입)	백만 달러	8,229	6,682	9,323	12,316	8,477	9,630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37,041	-21,808	-42,739	-59,047	-53,183	-54,398	N/A	N/A
경상수지	백만 달러	-3.05	11.58	-6.92	-18.3	-11.2	-3.8	-1.2*	-0.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52.1	48.6	49.27	55.73	55.38	57.29	57.50*	57.0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86.7	68.2	119	92	89	29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35	332	349	361	372	89.3	90.0*	N/A

주: '24년은 추정치, '25년, '26년은 전망치

자료: IMF, Global Trade Atlas, 필리핀 통계청(PSA), ADB, WB, Trading Economics, 필리핀 중앙은행(BSP)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완만한 재가속 : 물가상승 둔화와 수출 회복으로 전기 대비 개선
 - '25년 2분기 실질 GDP 전년 동기 5.5% 증가, 계절 조정 전기 대비 1.5% 증가로 단기 회복세 확인
 - * 필리핀 통계청(PSA), '25.08.07.
 - 거시정책 '속도보다 방향' 기조 유지,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점진적 재정 및 통화정책과, 해외시장의 수요개선으로 경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제조업 PMI 5~7월 50.1 → 50.7로 확장선 유지하되 강도는 완만함)
 - * Trading Economics ('25.07.)
- (소비) 가격 안정 및 실속 중심 소비의 병행, 임금·고용의 방어와 공공요금·식량 변수 상쇄
 - '25년 7월 기준 소비자물가 0.9%로 저물가 흐름 유지. 수도권(NCR) 최저임금 인상 고시와 6월 실업률 3.7% 영향으로 생활 필수 지출은 방어적 유지
 - * 소비판매 증가율 '25년 1월 1.8% → '25년 6월 0.8%(Trading Economics, '25.07.)
 - '25년 2분기 가계최종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NCR 일반소매물가지수(GRPI)는 6월 0.8%로 가격 압력 완화, 소비 전반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국면
 -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분(7월 ₩0.4883/kWh, 8월 ₩0.6268/kWh) 및 쌀 수입 60일(9.1.~10.31.) 정지에 따른 식량 물가상승 등 가계부담 상방 요인 확대
 - * 필리핀 통계청(PSA), ('25.08.05.) / 대통령통신실(PCO)·필리핀뉴스청(PNA), ('25.08.06.)
- (민간투자) 투자유치 중심의 정책과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제조·전력·인프라 중심 설비투자 재가동
 - CREATE MORE 시행령 확정*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명확화**, 민관협력사업(PPP)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투자 가시성 개선
 - *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 및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 필리핀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공지('25.02.)
 -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환급을 제공, VAT 환급센터를 설립하여 전자 처리를 통해 환급 과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투자유입 확대를 위한 환경을 제공
 - 반면 통화완화 기대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하락 여지는 있으나, 정부의 투자승인 둔화에 따른 보수적 의사결정 과정 병존
 - * Reuters 통화정책 전망('25.08.)
- (산업생산) 재고 조정 마무리 이후 점진적 회복세
 - 상반기 초 재고·수요 조정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5~7월 제조업 PMI 50선 상회로 생산성 확장 국면 재확인
 - * S&P Global 제조업 PMI : 5월 50.1 → 6월 50.7 → 7월 50.9('25.08.01)
 - 공식 통계상 산업생산은 기대 범위 내 정성화로 전환되었으나 생산 증가속도는 제한적. '25년 6월

제조업 VaPI +1.8%, VoPI +2.2%(전년 동월)

* PSA MISSI 6월 보도('25.08.07.)

- 비용 및 수급 변수에 따른 월별 변동성 관리가 필요.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생산원가 상승과 직결되며, 제조업계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성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
- 한편 산업 전반에 전자주문시스템 도입 확산에 따른 제조 단계 및 납기 기일의 단축으로 생산증대 효과 기대, 특히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산업에 전자주문시스템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대통령통신실(PCO)·필리핀뉴스청(PNA) 발표('25.08.06.)

- (대외교역) '25년 들어 필리핀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무역수지가 개선(무역적자 축소)되는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필리핀 수출 증가율(%) : ('24년 12월) △1.9 → ('25년 1월) 9.6 → (2월) 12.8 → (3월) 8.7 → (4월) 7.6 → (5월) 15.5 → (6월) 26.9 → (7월) 17.3

- (교역량) '25년 7월 필리핀 교역량은 18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173억 8,000만 달러) 대비 13억 4,000만 달러(7.7%) 증가하였으며, 7월까지 누적 교역량 역시 1,25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153억 2,000만 달러) 대비 10억 39,00만 달러(9%) 증가
- (수출) '25년 7월 필리핀 수출은 73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62억 5,200만 달러) 대비 10억 8,400만 달러(17.3%) 증가하였으며, 7월까지 누적 수출은 486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26억 9,000만 달러)보다 59억 2,900만 달러(14%) 증가
- (수입) '25년 7월 필리핀 수입은 113억 8,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11억 3,000만 달러 대비 2억 5,500만 달러(2.3%) 증가했으며, 7월까지 누적 수입도 77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726억 2,800만 달러)보다 44억 5,800만 달러(6.1%) 증가
- (무역수지) '25년 7월 기준 필리핀 무역수지는 40억 4,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년 동월(48억 7,800만 달러) 대비 8억 3,000만 달러 개선되었으며, 7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14억 7,100만 달러 개선된 284억 6,300만 달러 기록

2025년 7월 필리핀 교역동향 개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4년 7월		2025년 7월		2025년 1~7월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총계	17,381.39	4.6%	18,720.44	7.7%	125,709.96	09%
수출	6,251.60	0.1%	7,335.92	17.3%	48,623.56	14%
수입	11,129.79	7.3%	11,384.51	2.3%	77,086.40	6.1%
수지	△4,878.19	△753.71	△4,048.59	829.6	△28,462.84	1,471.39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 (투자유입) 순유입 확대·연누계 감소, 부채성 자금 중심, 일본·미국·싱가포르·한국·대만 유입
 - '25년 4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 6억 1,000만 달러(전년 동월 +7.1%), 1~4월 누계 24억 달러(전년 동기 -33.4%)로 월별 개선과 누계 둔화 병존
 - * 필리핀 중앙은행(BSP)('25.07.10.)
 - CREATE MORE법 및 시행령(IRR) 정착으로 대출·채권성 자금(+24.3%, 5억 2,000만 달러)과 이익 재투자(+3.3%, 8,000만 달러) 확대로 투자유입을 견인,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지분 투자 -94.1%(400만 달러) 급감
 - 주요 투자국으로 일본·미국·싱가포르·한국·대만 등에 집중, 수혜 산업은 제조·금융·보험·부동산으로 편중됨
 - * 필리핀 중앙은행(BSP)('25.07.10.)
- (투자 진출) 자산 회수 전환·연누계 축소, 부채성(관계회사 대출) 회수 우세·지분은 소폭 배치, 확정 집행은 재생에너지·항만 중심(호주·인도·브라질)
 - 필리핀 거주자 해외 직접투자 국제수지(BOP)는 '24년 자산 항목 28억 7,000만 달러 대비 '25년 1분기 기준 약 9,000만 달러 순유입(=해외자산 회수)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지분 배치 1억 3,000만 달러와 함께 관계회사 대출 약 2억 2,000만 달러의 순회가 반영된 결과로 전반적인 ODI(Outward Direct Investment) 흐름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외 직접투자 핵심 지표(확정, 미화 기준)

구분	2024년(연간)	2025년 1분기
거주자 해외투자(자산)	28억 7,200만 달러	+8,800만 달러
지분 배치	—	1억 3,000만 달러
관계회사 대출	—	+2억 1,900만 달러

* BSP 국제수지 공식 통계(2024년 연간, 2025년 1분기)

- 특히 지분 배치(1억 3,000만 달러)는 주로 제조(전자·반도체)와 서비스(금융·IT)에 집중되며, 관계회사 대출 회수(2억 2,000만 달러)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필리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자금관리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5년 1~8월 해외 진출은 재생에너지와 항만 분야* 중심. 아시아·호주·인도 등에서 신재생 사업자금 조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중남미·아프리카·유럽 항만 거점 확장 투자가 집행·배정됨. 이는 확정된 금융약정·투자계획 공표에 기반
 - * ACEN은 8.12. 1억 달러 대출 계약 체결(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자금)로 호주·인도 중심의 해외 사업 확대 재원 확정
 - * ICTSI는 '25년 자본적 지출(설비투자) 5억 8,000만 달러 배정, 상반기 2억 3,200만 달러 집행으로 멕시코·브라질 등 항만 거점 확장 진행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마르코스 정부 정권 유지, 연합 균열은 제도권 이슈로 확대

- '24년 6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교육장관·NTF-ELCAC 공동부의장직에서 사임, '25년 2월 하원 탄핵 가결 후 '25년 7월 대법원이 탄핵소추의 위헌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리며 권력 갈등이 제도적 공방으로 전환
 - 부통령의 내각 사임('24.6.19. 발표)은 '22년 '통합(Unity)' 연합의 균열을 공식화, 이후 입법·행정부 간 긴장 요인으로 상시화
 - '25.7.25. 대법원은 하원의 탄핵소추를 위헌으로 판단, 단기적으로는 정권 안정에 우호적이나, 중장기 정치 리스크(재정렬·보복정치 논란) 잔존
- * AP통신 및 현지언론종합

□ 대외안보 축 재정비, 日-필리핀 RAA 발효 임박

- 상호접근협정(RAA) 서명('24년 7월) 후 비준 절차 완료, '25.9.11. 발효 예정으로 동맹 협력 법제화
 - 필리핀 상원 '24.12.16. 비준 동의, 日 참의원 '25.6.6. 통과 후 발효 절차 완료
 - 남중국해 긴장 상시화 속 합동훈련·군수지원의 법적 기반 강화, 정부의 대외안보 축이 제도적으로 고도화
- * AP통신 및 현지언론종합

□ 재정·경제 당국(DOF·NEDA·DBM·BSP) 재정비와 투자유치·집행력 강화 병행

- 재정·경제 당국 인사·조직 재정비 이후 인센티브 체계 법적 완결(법 공포)과 시행규칙(IRR) 확정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 CREATE MORE(공포 : RA 12066) 제정 완료, 인센티브 경쟁력 제고 목적의 법률 개정 체계화
 - 시행규칙(IRR) 공동 서명('25.2.17.)으로 적용 요건·감면 매트릭스·사후관리 명확화
- * 현지언론종합

□ 필리핀 정부, 홍수 통제 프로젝트 부패·비리·자금 남용을 집중조사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에 이르는 홍수방지 예산 횡령 스캔들의 심각성을 인정, 관련 부패·비리·자금 남용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패 근절 의지를 표명
 - 부패 혐의에 대한 대규모 국민적 시위와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하면서도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
 - 정부는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제도적 개혁도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투자 인센티브 체계 확정('CREATE MORE' 법·IRR) 및 사후평가 강화

- 마르코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비용공제 확대 및 지방세 간소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통해, 필리핀 내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추진

* 동남아 주요국 법인세 : 베트남(20%), 태국(20%), 말레이시아(24%), 인도네시아(22%)

- '24년 11월 CREATE MORE법 서명 후 '25년 2월 시행령(IRR) 시행 → '전략적 투자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 2025~2027)과 연계

- 반도체·전자 등 8대 분야* 5대 기준**으로 집중 지원(SIPP 2025~2027)

* ①첨단 제조, ②반도체·전자, ③친환경 금속, ④첨단 농업, ⑤재생에너지·ESS, ⑥데이터센터·통신·사이버 안보, ⑦관광, ⑧헬스케어·제약

** △ 수요, △ 인프라, △ 공급망, △ 기술, △ 산업 육성 등

SIPP 2025~2027 주요 분야(안)

	구분	주요 분야
Tier 3	과학기술혁신 활동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related Activities)	△ R&D, △ 특허 상업화, △ 우주, △ 수소, △ 원자력, △ 사이버안보, △ 데이터센터·AI, △ 양자기술
	과학기술혁신 지원시설(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Facilities)	
Tier 2	방산(Defense related Activities)	
	공급망 거점 (Industrial Value Chain Gaps)	△ 반도체 설계(IC design), △ 담수화, △ 공급망 확보(철강, 정유, 수입대체 활동), △ 지속가능 산업(전기차, 에너지효율선박, 신재생 에너지 등), △ 의료
Tier 1	식량안보 (Food Security related Activities)	
	기초 산업 (Modern Basic Needs)	△ 농·수산·임업, △ 제조업(제약, 반도체, 기계, 조선, 철강, 시멘트 등), △ 할랄, △ 서비스(MRO, 조달, 건설 등), △ 헬스케어, △ 인프라·물류(통신, 주택, 에너지시설 등), △ 에너지(ESS, 발전소 등)
	지속 가능 촉진 산업 (Sustainability Driven Industries)	△ 산업·유독성 폐기물, △ 수처리, △ 기후변화 대응

- 법인세율 인하(25% → 20%), 부가세 조기 환급(180일 → 90일) 등 인센티브 확충

구 분	CREATE ACT	CREATE MORE ACT
법인세율 (Corporate Income Tax Rate)	25%	20%
원천징수세 (Withholding Creditable Tax)	1% ~ 32%	최대 15%
전자매출신고시스템 구축 공제 (Allowable Deduction for cost of setting up an electronic sales and reporting system)	-	중소기업 100% 중견·대기업 50%
부가세 환급기한 단축 (Deadline to act an VAT refund claims)	180일	90일

- 전기요금 100% 공제 등 특별공제(Enhanced Deduction) 확대

구 분	CREATE ACT	CREATE MORE ACT
전기 요금	50%	100%
재투자 비용	제조업 한정	관광 및 제조업('34년까지)
전산화·사절단 등 참가	-	50%
적용 시기	법인세 면제 기간 (ITH) 이후	법인세 면제(ITH) 이후 또는 특별 법인세 병행 적용

- 유형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15억 페소 이상 투자하는 수출 전문기업(RBE)에 대해서는 최대 27년간 △ 법인세 면제(최초 4~7년) 후 △ 특별공제(이후 20년) 적용

구 분	투자 자본 (Investment Capital) 규모	
	15억 페소 이하	15억 페소 초과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년) △ 법인세 면제 (Income Tax Holiday) • (추가 10년) △ 특별공제 (Enhanced Deduction) • (총 14~17년) △ 특별공제 (Enhanced De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년) △ 법인세 면제 (Income Tax Holiday) • (추가 20년) △ 특별공제 (Enhanced Deduction) • (총 24~27년) △ 특별공제 (Enhanced Deduction)
수출 전문기업 (Registered Export Enterp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년) △ 법인세 면제 (Income Tax Holiday) • (추가 10년) △ 특별공제 (Enhanced Deduction) 또는 △ 5% 특별 법인세 • (총 14~17년) △ 특별공제 (Enhanced Deduction) 또는 △ 5% 특별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년) △ 법인세 면제 (Income Tax Holiday) • (추가 20년) △ 특별공제 (Enhanced Deduction) 또는 △ 5% 특별 법인세 • (총 24~27년) △ 특별공제 (Enhanced Deduction) 또는 △ 5% 특별 법인세

- 인센티브 요건·혜택 체계 명확화 및 사후평가 강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 준수비용 상승 병행
 - 재무부(DOF)·투자심의위원회(FIRB) 중심 시행규칙(IRR) 회람 완료
 - 우선순위 활동계획(SIPP) 연동, 법인세·관세·영세율 적용 기준 및 성과지표 기반 보고의무 확정
- * DOF·FIRB 공지('25.02.)

□ 전자상거래 규율 전면 집행(인터넷거래법, RA 11967)

- 필리핀 정부, 지속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자국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플랫폼 연대책임·국외 판매자 등록·표시의무·분쟁·테이크다운 절차 실효화
 -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시행규칙 공표 및 집행 선언
 - 디지털 플랫폼, e-마켓플레이스(예 : Shopee, Lazada)는 온라인 판매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2차적(부수적) 책임을 지며, 국외 판매자도 필리핀 시장 진입 시 무역산업부(DTI)에 등록 의무화, 상품 표시(라벨링) 의무를 준수 등
 - 분쟁 발생 시 DTI의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ODR)이 소비자 불만 처리를 자동화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페소 행정 벌금 부과를 비롯하여 DTI 장관이 발부하는 테이크다운 명령(위법 상품 즉시 삭제 등)과 블랙리스트 등록이 강제 집행됨
 - 약관·고지·환불·개인정보 처리체계 표준화 요구, 셀러 실명·사업자 검증(KYC) 의무화 등
- *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 수입통관 선(先)규제 도입, PTV·CEI 로드맵

- 사전국경 기술검증(PTV) 및 크로스보더 전자송장(CEI) 단계적 의무화
 - 필리핀 정부가 수출입 물품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DOF·필리핀 관세청(BOC) 공동행정명령 발령, 세부 행정명령(CAO) 순차 고시
 - 사전국경 기술검증(PTV)은 수입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원산지를 미리 검사하는 제도이며 '25년 5월부터 농산물(30일 후), 7월부터 비농산물(60일 후), 나머지 품목은 90일 후 순차 시행
 - 크로스보더 전자송장(CEI)은 BOC 전자 플랫폼에 등록 후 송장을 업로드해야 하며, '25년 2월 시범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 의무화 시행
 - 수출자 단계 전자송장 발급·데이터 정합성 요건 부과, 미준수 시 통관 지연·과징금 가능

□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압축근무·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유지, 수도권 최저임금 인상 시행
 - 압축근무는 주 6일 근무를 5일로 줄이되, 주 48시간 노동을 5일 이하로 압축(하루 8시간 초과, 최대 12시간)하는 방식, 초과근무 수당 없이 운영되며 안전·건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고용부(DOLE)에 사전 통보가 필수

- 유연근무는 플렉시타임, 원격근무, 교대제 등을 포함하여 팬데믹 이후 지속 적용 중, 기업은 DOLE 지역 사무소에 보고해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수도권 임금위원회(RTWPB-NCR) 최저임금 인상 고시*, 교대제·야간·휴일수당 규정 병행 적용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비농업 PHP 50(PHP 645 → PHP 695), 농업/소매/소제조 PHP 50(PHP 608 → PHP 658), 별도 가구 노동자(가정부)는 월 PHP 500 인상(기존 PHP 6,500 → PHP 7,000) 공식화

□ 플라스틱 포장재 EPR(확대 생산자책임, RA 11898) 본격 집행, 회수목표 연차 상향 & 준수 보고서 ECAR 의무

- EPR 제도는 '22년 법제화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 '25년 본격 집행되었으며, 생산자(자산 1억 페소 이상 기업)가 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책임지도록 강제
 - ECAR 제출·검증 의무화,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국세청(BIR) 지침에 따른 절차·양식 명문화
 - DENR 지침·BIR RMC에 따른 보고·검증·추적성 요건 확정, 회수목표 상향되며, 미달 시 벌금(최대 50만 페소)과 프로그램 중지 등의 제재가 부과
 - * '24년 40% → '25년 50% → '26년 60%(이후 70%, 80% 로드맵)
- 대형 일용소비재(FMCG)사의 회수·재활용 프로그램 확대(Nestle·Unilever 등), 플라스틱 크레딧/PRO 활용 보도 다수

3. 주요 이슈 Pick

가. (경제/산업) 신정부조달법(IRR 초안) 국산우대·녹색공공조달(GPP) 기조 반영

- (배경 및 내용)
 - 신정부조달법(Republic Act 12009) 및 시행규칙(IRR)('25년 2월) 공표. 조달 전 과정의 투명·경쟁·지속가능성 강화를 명시하며, 국내우선(25% 가격 우위) 및 중소취약계층의 참여를 촉진
 - 특히 녹색공공조달(GPP)·지속가능성 개념을 제도에 반영. 일부 물품·구조물의 환경성 사양 가점 및 GPP 전략 단계적 도입 규정
 - * GPPB/DBM 고시 : IRR 전문 공개, 운영지침 후속화(필리핀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연계)
- (관련 분야·산업)
 - 공공조달 참여 가능한 분야로 제조·인프라·ICT·환경설비 등 다양
 - 전자조달 시스템(PhilGEPS)에서 국산제품 입찰 시 가점(10~15%) 부여
 - Tatak Pinoy Act와 연계해 필리핀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지역 공급자를 우선 고려, 부가가치+환경성 인증 결합 시 입찰 경쟁력 제고 가능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기회 : 현지화(JV·현지 조달·부품 국산비중) 및 환경성 인증·LCC 기반 제안서로 평가 가점 기대
 - 리스크 : 순수 해외업체 단독 입찰의 불리 가능성 → 현지 파트너링·GPP 증빙 포트폴리오 사전 확보 필요

나. (외교/통상)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진전 및 GSP+ 지위 유지

- (배경 및 내용)
 - 필리핀-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24년 재개 → '25년 6월 제3차(브뤼셀) 진행, '25년 10월 제4차(마닐라 예정)
 - 당국, 차기 회의에서 시장접근(관세·원산지 등) 논의 개시 가능성 시사. EU, '25년 8월 GSP+ 지위 유지 통지
 - 단기적으로는 GSP+ 특혜관세 지속으로 對EU 수출 안정성 확보, 중기적으로는 FTA 체결 시 관세·원산지·서비스·투자 규범의 예측 가능성 제고
 - * GSP+ = EU 일반특혜관세 제도(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의 '특별인센티브' 약정으로, 인권·노동·환경·거버넌스 등 27개 국제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對EU 수출품 약 66% 품목에 관세 면제를 부여하는 제도

- (관련 분야·산업)
 - 전기·전자, 농식품 가공, 의류·신발, 의약·의료기기, IT·BPM 등 對EU 유망 품목·서비스
 - FTA 체결 시 원산지 기준,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위생·검역(SPS) 절차의 간소화 기대
- 우리 기업에의 영향(기회요인, 또는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 기회 : GSP+ 유지에 따른 관세 메리트 지속, FTA 진전에 따른 중장기 공급망 재배치·현지화+역내 가공(누적원산지) 전략 설계 가능
 - 리스크 : 환경·노동·지속가능성(ESG) 요건 상향 가능성 → 공장·공급망 실사(DD), 기술표준·인증,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사전 정비 필요. 협상 일정의 불확실성 관리 병행


다. (사회/문화) 무현금 결제 확산과 전자지갑 일상화(모바일 QR 결제·국경 간 연계 추진)

- (배경 및 내용)
 - 필리핀 중앙은행(BSP) 통계 기준, '24년 소매거래 전자지급 비중 건수 57.4%·금액 59.0%로 상승. 매장결제(InstaPay·PESONet·QR Ph) 이용 확대 지속
 * '25년 상반기 기준 InstaPay·PESONet 거래 전년 동기 대비 약 40~50% 증가. '25년 7월 단일월 InstaPay 3억 6,900만 건·9,835억 페소 집계
 - BSP는 ASEAN 지역의 디지털 결제 통합을 위해 국경 간 즉시결제(Project Nexus) 연계 추진 및 역내 QR 상호운용 체계 구축 목표 유지, BSP를 포함한 인도(RBI), 말레이시아(BNM), 싱가포르(MAS), 태국(BOT) 중앙은행들이 '24년 6월 30일 협정에 서명해 '26년 구현을 준비중
- (관련 분야·산업)
 - 소매·외식·전자상거래·관광 등 소액 다빈도 결제 업종 및 산업 전반
 - 필리핀 수출기업 전반에 국경 간 즉시결제 실현. 특히 InstaPay를 글로벌 즉시결제시스템(IPS)와 연결해 해외 송금 비용을 50% 이상 절감하고, 중소기업(SME) 수출 결제를 신속히 처리
- 우리 기업에의 영향(기회요인, 또는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 기회 : 필리핀 진출 우리 기업들은 전자지급수납(P2M·전자지갑 등) 도입에 따른 결제 성공률 상승 및 구매전환율 개선, 회원·포인트·할부 등 부가서비스 연계 확대 가능. 아울러 공급 결제 시 '26년부터 ASEAN과 즉시 연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품 수출 시 송금 지연(3~5일 → 10초)과 비용 절감(2~3% → 0.5%)으로 현금 흐름 안정화 기대
 - 리스크 : 한국 중앙은행(BOK)은 Project Nexus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필리핀 시장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기존 SWIFT 등 국제송금 방식 유지. 필리핀 거래처는 한국보다 비교적 ASEAN 거래처를 비교적 선호할 것으로 예상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7
2. 유망 산업	30
3. 협력 기회	33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GDP 5.4~5.5%·물가 1%대·전력요금 상승 병존, 실질소득 개선과 비용 압력의 상쇄 구도
- 전자·반도체 주도 수출 반등, '25년 1~5월 수입 대비 수출 증가로 적자폭 축소, 한-필 FTA로 관세·통관 비용 완화
- FDI 둔화속 제조 부동산 중심 유입 지속, 디지털 결제 확산과 IT-BPM 고용이 내수의 완충 장치로 기능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완만한 성장세 지속, 물가 안정과 전력요금 상승이 동시 전개됨
 - '25년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 2분기 5.5%로 소폭 가속됨. 상반기 평균 5.4% 수준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7월 0.9% 대비 상승했으나, 연중 평균 1%대의 낮은 물가 흐름이 유지됨
 - 수도권 기준 전력요금은 7월(+0.4883P/kWh), 8월(+0.6268P/kWh) 연속 인상되며 주거·상업용 비용 압력으로 작용
 - * 필리핀 통계청(PSA), '25.08.05., 현지 언론 종합
- 수출 반등과 전자·반도체 주도형 회복 확인
 - '25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1% 증가(70억 2,000만 달러)했으며, 전자제품(+30.0%), 반도체(+24.6%)가 확대를 견인
 - * 필리핀 통계청(PSA), '25.08.05., 현지 언론 종합
- 한-필 FTA 발효로 한국 기업 관세 환경 개선
 - '24년 12월 31일 발효에 따라 '25년부터 FTA 2년차 적용, 필리핀의 한국산 품목 96.5%, 한국의 필리핀산 94.8%에 대해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한국산 내연기관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구매력, 소비 성향

- 임금·물가의 상쇄 효과로 실질구매력은 완만히 개선되는 추세
 - 수도권(NCR) 일일 최저임금은 7월 18일부터 50페소 인상되어 비농업 695페소 적용됨. 낮은 물가와 결합해 단기 소비 여력 보강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전력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부담이 가게 실질지출 여지를 일부 제약
- 온라인·무현금 결제 확산으로 소액·반발 소비 확대 경향
 - 인스타페이 월 거래량은 '25년 7월 3억 6,900만 건(9,835억 페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고성장 기록. 7개월 누적(인스타페이+페소넷) 금액은 전년 대비 40%대 증가
 - * 필리핀 중앙은행(BSP), 현지 언론 종합
 - 소매결제 디지털화 비중 상승으로 기업의 온라인 결제 수용성이 매출 전환율 개선에 기여
- 서비스·BPO 관련 고용·소득 기반이 소비 안정장치로 기능
 - IT-BPM 산업은 '24년 기준 고용 182만 명(전년 대비 7% 증가)과 수익 380억 달러에서 '25년 4~5% 성장으로 고용 190만 명, 수출·수입(서비스수지) 유입 400억 달러 수준 전망
 - 은행·금융·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수요(특히 미국 70% 비중)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28년까지 약 250만 명 고용과 590억 달러 수익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인증

- 공산품 : 필리핀 산업통상부(DTI)의 필표준(PS)·수입검사(ICC) 의무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필요
 - 의무인증 대상 품목은 PS 마크(Philippine Standard Mark) 또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스티커 부착이 필요하며, 대상 리스트는 전기·전자(예 : 가전제품, 배터리, 전자부품, 조명기구 등)·건자재(시멘트, 철강, 파이프, 유리, 목재 등)로 확대 운영 중. 관세청은 '25년 1월 관련 고시를 재안내함
 - 수출 시 PS/ICC 부착 의무화, 미준수 시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즉시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으니 사전주의 필요

〈PS 및 ICC 마크〉

PS 마크	ICC마크
<p>PS Marks</p> 	<p>ICC Stickers</p> 

자료: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식품·의약·화장품·의료기기: FDA LTO 및 품목별 인증이 요구됨
 - 기업은 LTO(사업자) 취득 후 제품군별로 CPN(화장품), CPR(식품·의약), CMDR(의료기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25년 7월 LTO 갱신 절차가 개정·시행됨
 - '25년 7월부터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심사 도입으로 LTO 갱신 절차가 간소화(평균 30 → 20일) 될 것으로 예상하나 일부 심사 기준이 강화(품질 관리 시스템 GMP 준수 여부 및 현지 대리인 필수 지정 등)될 전망
- 전기·통신기기: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의 형식승인 및 DOE 에너지라벨(PELP) 대상 여부 필요
 - 필리핀 NTC는 고객단말장비(CPE, Customer Premises Equipment)와 무선통신설비(RCE,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등은 NTC 형식승인·인증(Type Approval*/Acceptance**)을 요구
 - * Type Approval : 공공 통신망 연결 CPE에 적용. 표준 EMC, 주파수 등 준수 필수
 - ** Type Acceptance : 공공망 미연결 RCE에 적용. RF 방출, 안전기준 확인
 -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운영하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소비 제품(ECP)의 라벨링 (PELP)과 최소 효율 기준을 강제하며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MEP) 적용 대상 확대 진행 중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PELP) 예시〉



자료: 필리핀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해당 시장의 전략적 가치

- 역내 전자 공급망 결속 및 중간재 허브 강화
 - 전자·반도체 수출 확대, 제조업 수출 비중 상향. 설비·중간재 수요 동반
- 디지털 경제·서비스 생태계 기반의 ICT·유통 협력 확대 여지
 - 고빈도·소액결제 확산, 전자상거래·핀테크·SaaS 진입비용 절감 효과
- 한-필 FTA 활용에 따른 관세·통관 비용 절감
 - 관세 철폐 범위(한국 94.8%·필리핀 96.5%) 및 이행 개시('24.12.31.) 근거, 자동차·전자·농식품 중심 시장 접근성 개선 효과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25년 1~5월 누계 수출 33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 수출이 수입 증가율(5.2%)을 상회,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에 우호적 흐름
 - *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25.09.08.
- (수입 규모) '25년 1~5월 누계 수입 57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 누계 기준 적자(-238억 달러) 지속의 주된 규모 요인이나, 증가율 둔화로 수지 개선 여지
 - *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25.09.08.

필리핀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729	-7.6	729	0.1	335	9.6
역외수입	1,337	-8.3	1,349	0.8	573	5.2
무역수지	-608	-9.3	-619	-1.8	-238	-
총 교역	199	-8.2	200	0.7	88	6.9

자료: 한국무역협회('25.09.08.)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상위 5개국 합계 비중이 전체 수출의 과반을 차지
 -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순이며, '23 → '24년 상위 5개국 구성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25년 1~5월 누계에서도 동일
 - *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25.09.08.
- (수출 품목) 전자부품 및 반도체 중심의 국가 수출
 - 필리핀은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의 주요 허브이고, '23 → '24년 전자부품·반도체(HS 85류) 우위가 지속되며, '25년 1~5월 누계에서도 동일 품목군이 상위권을 유지
 - 전자부품·반도체(HS 85류) 외에도 코코넛 오일(HS 1513)·구리 및 동제품(HS 74류)·과실 가공품(HS 2009)·수산물가공품(HS 1604)이 후순위를 구성
 - *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25.09.08.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아시아권 국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도가 연속됨
 - '25년 5월 기준, 필리핀 수입의 최대 국가는 중국(23%)이며 인도네시아(9.5%), 일본(8.5%), 한국(7.2%), 미국(7%)이 수입 TOP5 국가들이며, 뒤이어 싱가포르(5%)·말레이시아(4.5%)·대만(3.9%)·태국(3.5%)·베트남(3.1%) 등 인근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
 - '23년 → '24년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수입이 유지되며, '25년 1~5월 누계에서도 동일 권역이 상위를 구성
 - *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25.09.08.
- (수입 품목) 설비·원자재 성격의 품목군이 누계 수입을 주도
 - 전자중간재·기계류(HS 8485), 광물성 연료·정유(HS 27), 수송 장비(HS 87), 철강재(HS 7273), 화학·플라스틱 원료(HS 38·39)가 주요 품목군으로 집계

- '23 → '24년 HS 8485 및 HS 27의 상위 유지가 확인되며, '25년 5월 누계에서도 동 구성의 상위권 지속
*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25.09.08.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한국-필리핀 교역은 전자·기계 등 중간재 중심 구조 유지
 - '23년은 전년 대비 축소 국면이었지만, '24년 수출 증가 및 무역수지 확대로 전환, '25년 1~7월 누계 기준 수출 증가(+10.1%)·수입 감소(-26.4%) 동반에 따른 흑자 지속
 - '24년 12월 31일 한-필 FTA 발효로 '25년부터 2년차 관세인하 적용구간 진입, 관세 철폐 품목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거래비용 완화 효과 등이 반영. 현지 통계·언론에 따르면 추후 필리핀의 전자·설비 수요개선 및 투자 프로젝트 진행 등이 한-필리핀 교역 변수로 제시
- 교역 규모
 - (수출) '23년 90억 달러(-26.8%) → '24년 102억 달러(+13.7%) → '25년 1~7월 64억 달러(+10.1%)
 - (수입) '23년 46억 달러(-10.3%) → '24년 44억 달러(-4.6%) → '25년 1~7월 20억 달러(-26.4%)
 - (무역수지) '23년 +44억 달러 → '24년 +58억 달러 → '25년 1~7월 누계 +44억 달러
*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25.09.09.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한국의 對필리핀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10,247	13.7		총 수출	6,353	10.1
1	경유	2,175	57.4	1	경유	1,254	-2.6
2	자동차취발유	1,271	-5.7	2	자동차취발유	786	7.0
3	메모리반도체	1,166	53.6	3	메모리반도체	641	-0.7
4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583	-18.7	4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27	33.7
5	스마트폰부품	368	0.3	5	군함	246	0.0
6	트랜지스터	237	164.5	6	비행기	172	0.0
7	동선	228	23.0	7	동선	169	11.7
8	제트유	164	9.9	8	트랜지스터	140	71.3
9	철도차량	148	553.5	9	안료	78	-6.1
10	안료	140	-27.2	10	기타집적회로반도체	74	78.7

자료: 한국무역협회('25.09.09.)

- (수입)

한국의 對필리핀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4,431	-4.6		총 수입	2,014	-26.4
1	소형전동기	704	7.1	1	기타집적회로반도체	200	-5.7
2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79	4.8	2	와이어하네스	181	-6.5
3	기타집적회로반도체	353	-16.4	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69	-26.9
4	와이어하네스	314	9.7	4	소형전동기	130	-58.1
5	바나나	235	11.7	5	바나나	129	-23.5
6	동괴	147	78.0	6	메모리반도체	77	90.8
7	변성기	143	-7.8	7	변성기	72	-12.9
8	동스크랩	114	-17.9	8	동스크랩	49	-31.1
9	제조담배	107	36.6	9	음향기기부품	46	-18.5
10	동광	95	-36.8	10	제조담배	45	-20.4

자료: 한국무역협회('25.09.09.)

- 필리핀 내 수출시장 점유율 '24년 7.4% → '25년 1~5월 7.2%, 수입원 4위 유지
 - 정제유(HS 2710) 총 수입 36억 1,370만 달러 중 한국 14억 240만 달러(점유율 38.8%)로 최대 공급국 지위, 집적회로(HS 8542) 총 수입 58억 2,710만 달러 중 한국 9억 930만 달러(15.6%)로 중국 우위·한국 2위 구조, 승용차(HS8703) 총 수입 21억 6,270만 달러 중 한국 3,480만 달러(1.6%)로 비중 제한적
 - 한국, 필리핀 수입원 순위 4위 유지(점유율 7.4 → 7.2%) 소폭 하락, 정제유 최대수출국 유지, '25년 5월 누계 기준 집적회로 2위 수출국

□ 필리핀 주요 수출 성공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필리핀 진출 전략 : 한국기업 M사(현지 L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프리미엄 '투트랙' 전략(B&B : 일상 안전성, 닥터아토 : 기능성 솔루션)으로 Landers 핵심 고객의 '안전·신뢰' 수요를 동시 충족
- 필수 인증 : 필리핀 식약청(FDA)
- 성약 소요기간 : '25년 2월 20일~6월 16일(약 4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마닐라무역관 '필리핀 1무 1유 지원사업' 입점 상담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제품 포지셔닝에 맞는 프리미엄 유통망 타겟팅이 성약 확률을 높임
 - 공신력 있는 KOTRA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뢰 확보와 네트워킹이 유효



성공 사례로 보는 필리핀 진출 전략 : 한국기업 E 사(현지 J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HMR(간편조리) 특성이 편의점 채널과 정확히 맞물리고, 한국 내 흥행으로 '검증된 제품력' 신뢰 확보
- 필수 인증 : 필리핀 식약청(FDA)
- 성약 소요기간 : '25년 6월 10일~7월 22일(약 1.5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2025 서울푸드(Seoul Food 2025) 현장 상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현지 유통의 빈틈(제품 다양성 부족, 젊은 층 컵떡볶이 선호)을 겨냥한 정밀 분석이 핵심
 - 대형 박람회에서도 문화·소통 코드가 맞는 바이어를 현장 발굴하면 단기간 성약이 가능

□ 주요 경쟁국 동향

- (구조) '25년 5월 기준, 필리핀 수입의 최대 국가는 중국(23%)이며 인도네시아(9.5%), 일본(8.5%), 한국(7.2%), 미국(7%) 순으로 확인되며 '25년 7월에도 중국이 최대 수입국 지위를 지속함. 전자제품이 최대 수입 품목군으로 집계됨(7월 단월 수입 28억 달러, 비중 24.6%)
- (투자) '25년 2분기 승인 외국인투자자는 673억 8,000만 페소(-64.4% YoY)로 집계됨. 국가별로 싱가포르 79.4%가 1위를 기록함. 외국인투자 중 전력·가스·증기 분야가 81.2%(총 투자 기준 78.8%)를 차지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식량·곡물) 규제 건수 : 1건 — 쌀 수입 60일 정지
 - 대통령령(EO 93)로 쌀 수입 9.1.~10.30. 정지. 수확기 가격 안정 및 농가 보호 목적 명시

- 기간 한정 조치로 종료 후 수입 재개 전제. 국내 수확·비축·물가관리 상황에 따른 단기 공급 변동성 주시 기조
- (무역구제·시멘트) 규제 건수 : 1건 — 잠정 세이프가드
 - DTI DAO 25-01로 수입 시멘트(HS 2523.29.90, 2523.90.00)에 400P/MT(=16P/40kg) 보증금 부과. 관세위원회(TC) 정식조사·공청 진행
 - 기간 한정 조치로 종료 후 수입 재개 전제. 국내 수확·비축·물가관리 상황TC 판정에 따라 확정·종료·수준 조정 가능. 국내 산업 손상·수입 동향 판단이 결정 변수
- (전자상거래·통관) 규제 건수 : 2건 — 표준 절차 제정 1, 준거 통보 1
 - BOC CAO 01-2025로 국제 B2C 전자상거래 통관 표준절차·플랫폼 책임·자료제출 요건 규정. BOC CMC 15-2025로 BPS 의무 인증(PS/ICC) 준거 재통보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체계 운영 고도화 및 BPS 목록 준수 강화로 문서요건·검사·스티커 부착 등 이행 부담 증가 가능
- (SPS·가금류) 규제 건수 : 금지 1건·해제 8건
 - 벨기에산 가금류·제품 일시 수입 금지(MO 20, 4/7) 이후 해제(6/12). 미국 7개 주(미네소타 5/6 + 인디애나·메릴랜드·미주리·뉴욕·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 7/3) 해제
 - 질병 발생·소강에 따른 국가·주 단위 탄력 운용 지속. 금지 → 해제 순환 사례 누적
- (對한국) 규제 변화 : 해제 1건
 - DA MO(5/5)·FDA Order 2023-0790-B(6/16 고시본)에 따라 한국산 가열처리(열처리 기준 충족) 돼지고기 제품 수입 재개
 - 위험평가·열처리 기준 충족 전제로 수입·유통 정상화 경로. 對韓 특정 추가 규제 신규 부과 공식 고시 없음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서비스(IT-BPM, 관광)와 제조(전자)가 성장 기여를 주도하고, 농업은 2분기 생산 급증으로 공급측 안정에 기여, '25년 2분기 GDP는 +5.5%로 1분기(+5.4%)보다 소폭 개선됨
 - IT-BPM 매출 380억 달러('24 → '25년) 400억 달러 경신 가시권, 전자 수출은 월 39억 달러대(6~7월)로 회복세가 확연함. 인프라 집행은 상반기 누적 +1.4%로 재가속 여지 확보됨
 - 전자 수출 반등과 IT-BPM 확장이 성장 저변을 강화하고, 농업·관광 정상화가 내수를 보강하고 있음. 반면 기초소재 제조 조정, 오피스 공급 과잉·전력요금 상승이 제약으로 남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프라 집행 유지가 완충 장치로 작동함

- * 전자 수출 : 6월 42억 달러, 7월 39억 2,000만 달러
- * 관광 : '25년 상반기 290만 명('25.9.1. 누적 400만 명 근접)
- * 제조·오피스·요금 : 기초금속 -23.2/정유 -12/화학 -14.7(6월); 공실률 22%(연말 전망)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제조업(전자 중심)

- 전자 수출이 월별로 고점 대비 조정되었으나 우위를 유지함. '25년 6월 전자 수출 42억 달러(총 수출 비중 59.9%) 이후, 7월 39억 2,000만 달러(+24.5% YoY, 전체 수출의 53.5%)로 확인됨. 7월 총 수출은 73억 4,000만 달러(+17.3% YoY)로 7개월 연속 증가 추세
- 제조 생산은 7월 재차 위축됨. PSA MISSI 기준 '25년 7월 VaPI -1.3% YoY, VoPI -1.1% YoY이며, 상반기(6월) 기본금속 -23.2%, 정유 -12.0%, 화학 -14.7%의 두 자릿수 하락이 확인됨. 7월 계절 조정 VaPI는 전월 대비 +3.0%로 월간 반등이나, 1~7월 평균 성장률은 +0.4%로 낮음
- 제조 경기선행지표는 7월 PMI 50.9(3개월래 최고), 8월 50.8로 소폭 둔화
- * 필리핀 통계청(PSA), SEIPI,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보도 및 현지언론종합

• 디지털경제(결제·상거래)

- 즉시 이체 체계 확대로 무현금 결제가 빠르게 확대됨. 7월 기준 인스타페이·페소넷 이체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5년 2분기 인스타페이 분기 평균 증가율이 37.3%, 금액 11.6%로 제시. 디지털 결제 확산은 전자상거래와 소매 유통의 거래비용을 낮추며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음
- *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보도, 필리핀 중앙은행(BSP) 및 현지언론종합

• 소매/유통

- 내수 가격여건 완화 전망. 헤드라인 물가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9%, (근 6년래 저점), 8월 기준 1.5%로 재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구간임. NCR 일반소매물가지수(GRPI) 상승률은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8%로 완만함
- 전력요금은 7~8월 연속 인상 후 9월 소폭 인하. 7월 +0.4883P/kWh(12.6435P/kWh), 8월 +0.6268P/kWh(13.2703P/kWh), 9월 -0.1852P/kWh(13.0851P/kWh)로 공시됨. 200kWh 가구 기준 8월 +125P, 9월 -37P 상당의 변동
- * 필리핀 통계청(PSA), Meralco, 현지언론종합

• BPO(IT-BPM)

- '24년 확정 실적은 매출 380억 달러(+7%), 고용 182만 명. '25년 업계 목표치는 400억 달러 수준 (약 +5%대)으로 제시됨. 중장기 로드맵(2028)은 매출 590억 달러·고용 250만 명을 제시
- 수요구조는 북미 의존도가 높아 대외 변수(관세·규제·경기)에 민감함(업계 인터뷰·로드맵 근거). 성장률은 '기저확대에 따른 완만화' 전망이 다수 제시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5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 3억 7,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8% 감소, '25년 상반기 누계 34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로 집계됨
 - 4월 6억 1,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5월 5억 8,6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 6월 3억 7,6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7.8% 감소)로 등락이 나타남
 - '25년 상반기 기준 지분 자본(재투자 제외) 3억 7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74.6% 감소), 배당 재투자 5억 7,3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대출성 자금 25억 3,8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로 확인됨
- * 필리핀 중앙은행(BSP), BSP의 FDI는 실현 유입 기준이며, PSA·투자유치기관의 '승인 외국인투자'는 약정치로 실제 집행과 시차·과리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높은 제조업 비중, 부동산, 도·소매 등 다방면에서 투자유입 확인
 - '25년 상반기 누계 기준, 지분 자본 유입의 50%가 제조업, 19%가 부동산, 10%가 금융·보험 활동으로 배분됨
 - '25년 1~8월 PEZA 승인투자 1,058억 3,000만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1.5% 증가함. 승인투자는 약정치로 실현분과 구분됨
- * 필리핀 중앙은행(BSP),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

□ 필리핀의 對韓 투자 현황

- 필리핀의 對韓 직접투자는 사례 중심·소비재·서비스 편중의 제한적 흐름
 - 적지별 세부 통계 공개가 제한되어 총량(대외직접투자) 위주로 파악되며, 확인 가능한 건들은 브랜드 인수·마스터가맹·소매 진출 등 내수지향 서비스가 주류
- * 필리핀 중앙은행(BSP)
- 월별·건별 변동성은 존재하나 구조적 확대 신호는 제한적
 - 투자 집행이 개별 프로젝트·거래 공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대규모 제조·인프라형 유입은 드문 편이며, 지분 소수 참여·합작 투자 형태가 다수
- * 필리핀 중앙은행(BSP)
- 필리핀 글로벌 F&B 기업 줄리비, 한국 컴포즈커피 투자 성과지표 개선
 - '25년 2분기 커피·차 부문 시스템매출 전년 동기 대비 68.8% 증가, 상각전영업이익(EBITDA) 76.8% 증가 확인. 성장 기여의 과반이 컴포즈커피로 공시

□ 한국의 해당 주재국 투자 진출

-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는 '22~'24년 확대 추세를 보였고 '25년 1분기에도 증가 기조가 유지됨
 - 투자금액은 '22년 8,800만 달러 → '23년 1억 400만 달러 → '24년 1억 7,900만 달러 → '25년 1분기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가 확인됨. 신규 법인 설립은 '22년 40건 → '23년 47건 → '24년 45건 → '25년 1분기 9건으로 안정적 흐름이 이어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Q.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88	2.3	104	18.2	179	72.1	53	112
신규 법인 설립 건수	40	135.3	47	17.5	45	4.3	9	0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S사, 글로벌 MLCC 수요 대응을 위한 필리핀 칼람바 법인 설립

- (기업정보) 1997년 설립, 라구나주 칼람바 CIP 내 생산거점. 주요 품목은 MLCC·인덕터·칩저항·카메라 모듈. '24년 임직원 7,719명, 누적 투자 14억 2,000만 달러, '22년 매출 8억 2,000만 달러
- (성공사례)
 - PEZA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생산성·고용 창출 실적을 축적하고 신사옥('23.6.) 준공으로 IT·전자 수요 대응 체제를 확립. 전장용 MLCC 신규사업 추진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
- (시사점)
 - 전기차·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MLCC 탑재량 급증이 부품 현지화 수요를 견인하는 구조임. 경제특구 (PEZA) 인센티브와 칼람바 전자클러스터의 집적도가 대규모 설비투자 유인으로 작동함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B사, 글로벌 특화전자(무전기·레이더·GPS·블랙박스) 수요 대응을 위한 칼람바 법인 설립

- (기업정보) '12년 설립('13년 양산), 라구나주 칼람바 CIP Batino 입지. '23년 매출 6,200만 달러, 임직원 505명. 주요 품목은 산업용 무전기, 레이더 디텍터, GPS 수신기, 블랙박스
- (성공사례)
 - ODM·OEM·JDM 다변화로 Motorola·Cedar(Escort/Cobra)·Comtec·Asahi 등 글로벌 고객망 확보. 초기 540만 달러에서 누적 1,340만 달러 투자로 생산역량 확충 및 500명 이상 현지 고용·교육 체계 정착. 지역 상공회의소(KCCI·LCCI) 활동을 통한 파트너십 기반 강화
- (시사점)
 - 중소·중견의 다품종 소량·완성품 조립형 모델이 필리핀 제조 허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형임. 통신·차량 전자 액세서리 등 틈새 고부가 시장 공략과 지역 네트워크 활용이 성장동력으로 기능함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요율·상한 조정, 하도급 규제에 따른 고용비용·준수 부담 확대
 - 수도권(NCR) 일급 최저임금 비농업 695페소, 농업 658페소 적용, 지역임금위원회 재심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
 - SSS 총 요율 15%(사업주 10%·근로자 5%) 및 PhilHealth 5%(소득상한 100,000페소) 유지에 따른 급여부담 증가
 - 노동부 DO 174-17 기준 ‘노무공급형’ 하도급 금지 및 최소자본 요건 준수 의무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지분 제한 체계와 토지 ‘소유’ 금지 지속, 장기 ‘임차’ 제도 확대로 투자구조 설계상 제약과 기회 병존
 - RA 12252 시행에 따른 외국인 민간토지 최대 99년 임차 허용, 토지 ‘소유’ 금지 유지
 - 공공서비스법(개정)·IRR상 전력 송배전, 수도·하수관로, 송유관, 항만·공항 등 공공유틸리티 40% 외국인지분 상한 적용
 - 12차 외국인투자부정목록(EO 175) 및 소매무역자유화법 개정(RA 11595) 기준 대중매체 외국인 지분 금지, 광고업 30% 등 업종별 제한과 소매업 최소 납입자본 2,500만 페소 요건

2. 유망 산업

가. 데이터센터·클라우드(코로케이션·하이퍼스케일)

□ 디지털 전환 가속에 따른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수요 확대 국면, 전자 수출 회복과 필리핀 투자청(BOI) 승인 프로젝트 증가가 결합되고, 통신사·글로벌 사업자의 증설이 이어지며 고밀도 전력·냉각·망 인프라, 물리 보안·소방 및 데이터센터 통합관리(DCIM)까지 가치사슬 수요가 동시 확대되는 흐름

- (현지 산업 규모) BOI는 '25년 4월 말까지 총 4건, 401억 페소 규모·IT 로드 81MW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승인 현황 제시
 - PLDT Inc.(이하 PLDT) 산하 ePLDT와 VITRO Data Centers는 '25년 상반기 코로케이션 매출 36% 증가 공표. Globe Telecom(이하 Globe)-ST Telemedia Global Data Centres(이하 STT GDC) 합작의 신규 설비도 단계적 가동 계획 제시. 승인·가동 병행으로 유효용량과 상업 매출이 동반 확대되는 구조 형성
- 최근 수출입 동향 '25년 7월 전자제품 수출 39억 2,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20%대), 1~7월 누계 256억 1,0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7%대) 기록
 - 필리핀 통계청(PSA) 집계 기준 '25년 6월 자본재 수입 37억 1,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31%대)로 통신장비·전기기계 증가 기여. 서버·네트워크·전력변환장치·변압기 등 설비성 품목 조달 및 설치 수요의 동반 확대 확인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PLDT(ePLDT/VITRO)는 Sta. Rosa(50MW) 중심의 랙 캐파 확대와 하이퍼스케일·AI 수요 유입 언급. Globe-STT GDC는 Fairview·Cavite 권역 데이터센터 가동 준비 계획 제시
 - 데이터센터는 BOI 및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우선 육성 분야로 제시되고, 통신 인프라·재생에너지 연계 모델과의 결합이 대형 투자로 이어지는 양상 확인

필리핀 데이터 센터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PLDT Inc.(이하 PLDT) / ePLDT·VITRO Data C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코로케이션 매출 36% 증가 공표 - Sta. Rosa(50MW) 중심 증설 계획 및 랙 캐파 확충 기초 * 하이퍼스케일·AI 수요 유입 언급

자료: 현지 언론종합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고효율 전력변환장치·수배전반·에너지저장장치(ESS), 냉각(액침·기류), 랙·케이블링, 물리보안·소방, DCIM·마이그레이션 등에서 고사양 조달 및 통합 EPC 수요 확대
 - 전력수요 이중화와 에너지효율 요건 강화로 한국 기업의 고효율 전력·냉각 솔루션, 운영최적화 소프트웨어, 보안·소방 시스템의 협업 여지 확대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전자 수출 회복, 자본재 수입 확대, 통산·글로벌 사업자의 투자 지속에 따른 '25~'30년 수요 저변 확대 예상
 - 데이터 현지화·보안 규정 강화와 AI 수요 증대로 고밀도 설비 전환 가속 가능성. 한국 기업의 기자재·엔지니어링 참여기회 확대

나. 전기차(EV)·배터리·충전인프라

□ 전기차 산업발전법(EVIDA)에 따른 공공·법인 도입 의무와 브랜드 라인업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목표('28년 7,300기) 및 민관 사업(전기택시·공공충전망) 추진이 병행되며, 전장부품·배터리·충전 운영·유지보수까지 밸류체인 수요가 확장되는 기조 형성

- 현지 산업 규모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ation Office, 이하 LTO) 등록 기준 '25년 1~7월 전동화차(EV·HEV) 2만 8,353대 신규등록, 같은 기간 순수전기차(BEV) 1만 3,792대 집계
 - 충전소는 '25년 3월 말 기준 912기 운영, 정부 목표는 '28년 7,300기. '25년 1월 테슬라 공식 센터(마닐라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개소로 판매·정비·슈퍼차저 등 생태계 정비 진행
- 최근 수출입 동향 '25년 7월 전자 수출 39억 2,000만 달러, 1~7월 누계 256억 1,000만 달러로 수출 증가의 주동력 유지
 - '25년 상반기 누계 자본재 수입 193억 4,000만 달러(전년 동기 +13.4%)로 충전기·전력변환장치 등 설비수요 확대의 간접 지표로 해석

2025년 상반기 필리핀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분류	2024년 1월~6월(누계)	2025년 1월~6월(누계)	증감률
자본재	17,062.29	19,344.83	13.4
원자재 및 중간재	22,238.05	23,629.33	6.3
광물 연료, 윤활유 및 관련 재료	10,108.71	8,439.70	-16.5
소비재	11,832.32	13,567.05	14.7
특별거래	257.3	235.77	-8.4
기타	257.3	235.77	-8.4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25.09.12.)

- 통신장비·전기기계 수입 증가와 충전 인프라 구축, 차량 전장·배터리관리시스템(BMS) 수요가 연동되는 특징 확인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Toyota(HEV), Nissan(BEV), BYD(BEV) 등 브랜드 전개. 마닐라전력공사(Manila Electric Company, 이하 Meralco)는 베트남 V-Green·Green GSM와 전기택시·공공충전망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테슬라는 판매·정비·슈퍼차저 운영 병행
- 정부는 EVIDA에 근거해 공공·법인 차량의 일정 비율 EV 도입과 충전 인프라 확충 추진, 세부지침과 공청회 병행

(참고) 필리핀 전기차 충전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Toyota Motor Philipp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HEV) 라인업 중심 판매 확대 기조 - 법인·공공 부문 수요 대응 및 보급형 차종 확장
BYD Philipp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V 세단·SUV 라인업 확대 - 민간 충전 사업자와 전시·시승 연계 판매 강화
Tes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닐라 BGC 공식 센터 운영(판매·정비·슈퍼차저) - 민간 충전 네트워크와 상호보완적 인프라 구축 기조
마닐라전력공사(Meral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택시 및 공공 충전망 구축 협력 MOU 체결 - 도심·거점형 급속·완속 혼합 배치와 운영 모델 검토

자료: 필리핀 자동차협의회(CAMPI), 현지 언론종합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급속·완속 충전기, 운영시스템(결제·통신 연동), 배터리·BMS, 전력품질·피크저감(ESS), 전기택시·라스트마일 e-모빌리티, 설계·시공·유지보수에서 협업 수요 확대
- 한국 기업의 전장부품·배터리 소재·충전 플랫폼(통신·결제·운영)과 현지 유틸리티·유통망 결합을 통한 사업화 기회 존재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EVIDA 이행, 충전소 7,300기 목표와 민관협력 확대를 고려 시, '25년 이후 보급 확대세 지속 가능
- 테슬라 센터 가동과 글로벌·중국계 브랜드의 라인업 다변화로 수요 저변 확대, 전자 수출 견조와 자본재 수입 확대가 조달·설치 수요의 기반 강화 요인으로 작용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한-필 FTA 발효('24.12.31.) 이후 관세 양허표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한국산 공산품의 단계적 관세 인하 경로 가동
 - 자동차·전장부품, 산업·전력 기자재, 공작·공정기계 등 자본재·중간재 중심의 가격경쟁력 보강 가능성 확대
 - 바나나 등 농식품의 관세 단계적 인하(5년 내 0%)에 따른 물량경쟁력 회복 구간
 -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 및 승인수출자 제도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실익 현실화, 전자·부품 공급망 협력의 상호보완 심화 기초



성공/실패 사례

- (개요)
 - 관세 양허·원산지증명 집행체계 정비에 따른 양허 적용 경로 확립, 농식품(바나나) 중심의 대한민국 수출 여건 개선 기초 형성
- 내용
(성공사례)
 - 관세 일정 국내법화 및 세관 고시 마련에 따른 Form PH-KR·승인수출자 원산지신고 인정 체계 확립
 - 바나나 관세 단계적 인하 경로 적용에 따른 對한국 시장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성 확인
 - 위생·검역 요건 충족 품목의 수입 재개 공표에 따른 통관·유통 재개 경로 마련
- (실패사례)
 - 원산지증빙 미비 시 양허 불인정 및 최혜국 관세 적용 위험 상존
 - 병해·생산비 상승에 따른 현지 농가 경쟁력 약화, 관세 인하 효과 체감 지연 우려
 - 전자·반도체의 수요·정책 민감도 상승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내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증빙 형식(Form PH-KR/승인수출자) 정합성 점검 및 연차별 인하 스케줄 반영 장기공급 계약·현지 파트너십 체계화 필요
 - 바나나 등 대한민국 납품의 중장기 구매계약 설계와 병해관리·물류비 동향의 병행 관리가 요구됨
 - FTA 누적 규정 활용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대외 정책·수요 변동 대응력 강화가 핵심

□ (G2G) 국가간 협력 유망분야

- 정상·고위급 협의 의제와 한국 정부·공공기관 참여 기추진·예정 프로젝트 중심 정리
 - (방산·해양안보) 필리핀 군 현대화(Horizon 3) 기조와 연동된 한-필 방산 협력 심화 국면. '25년 6월 한국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용 OPV 6척 중 1번함(BRP Rajah Sulayman) 진수, '26년 인도 목표. 필리핀 국방예산은 '25년 2,561억 페소(전년비 +6.4%) 배정으로 외부 방위 역량 강화에 중점. 9월 고위급 협의에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의지 재확인
 - (인프라·교통·EDCF 연계) '25년 1월 라구나 호안도로망(LLRN) 1단계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EDCF) 9억 500만 달러 차관계약 체결. 3월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PGN) 연도교량은 '25년 1월 EDCF 사전 미션에서 우선 협의 대상으로 상정. 정상·장관급 협의에서 도로·교량 대형 프로젝트 공동 금융·기술 협력이 의제로 거론됨
 - (디지털·데이터 인프라) '25년 8월 정보통신부(DICT)가 바탄 원전 부지(BNPP) 데이터센터 전환 가능성을 검토, KOICA-에너지부(DOE) 연계 타당성 검토와 점진 형성. 에너지·데이터 수요 동시 급증에 대응하는 공공 인프라 전환 의제가 부상



성공/실패 사례

- (개요)
 - 군 현대화(Horizon 1·2·3) 지속 추진 기조, '25년 국방예산 2,561억 페소(+6.4%) 배정, 외부 방위 역량 강화 우선순위
 - 남중국해 정세 지속, 현대화 프로그램 가속 의지 표명
 - 한-필 방산 협력 채널의 MOU 축적(1994·2009·2011) 및 정기 대화체 운용
- 내용
 - (성공사례)
 - 도입·납품 이력 축적 : 방탄복·방탄헬멧 계약, FA-50PH 시뮬레이터 납품, 호위함 인도 실적
 - 제도화 기반 유지 : 양국 간 MOU 체계와 고위급 정례 대화 채널 유지
 - 재정·정책 동력 확보 : 국방예산 증액 기조와 Horizon 3 추진 연계 수요 확대
 - (제약 사례)
 - 조달 구조의 외부 의존 : 국내 산업기반 취약, 주요 무기체계 수입 의존 구조
 - 비공개 절차 병행 특성 : 중거리 미사일·전투기 도입 관련 비공개 입찰 및 자금조달 옵션 검토 병행
 - 지역 안보 변수 상존 : 남중국해 긴장 국면 지속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유망 품목 라인업 구체화 : 군용차량·잠수함·초계함·훈련기 중심 수출 유망 품목 설정
 - G2G 경로 활용도 제고 : 발주처 대상 G2G 거래 방식 홍보, 유망 프로젝트 발굴·모니터링 체계화
 - 현지 점진 강화 전략 : 국방부·경찰청 등 발주처 네트워킹, 신뢰성 있는 현지 에이전트 연계망 구축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 (도로·교량)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사업
 - EDCF 지원 규모 9억 500만 달러. '24년 12월 정부지급보증 발급, '25년 1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25년 7월 시공·감리 입찰 진행. 서호안(총 37.5km) 중 Lower Bicutan-Alabang 7.9km 구간 도로 건설. 교통혼잡 해소 및 순환도로망 구축 목적
 - * 필리핀 EDCF 누적 지원 26개 사업, 25억 2,000만 달러. 교통 부문 19억 4,400만 달러로 77% 집중. 아시아 지역 비중 62%, 아프리카 26%, 중남미 9%. 필리핀은 방글라데시·베트남에 이어 승인금액 3위 (3.48조 원).
- (연결성 확대) Panay-Guimaras-Negros(PGN) 교량건설 사업
 - EDCF 지원 규모 미정. '21년 12월 사업준비자금 5,700만 달러 승인, '24년 2월 사업준비 차관 LA 체결. '23년 12월 상세설계 컨설턴트 계약 후 상세설계 진행. '26년 차관신청서 접수 및 승인 예정
 - * Panay-Guimaras 5km, Guimaras-Negros 13km 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 도시 간 이동시간 단축 및 지역경제 연계 강화 목적
- (도로)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
 - EDCF 지원규모 1억 1,100만 달러. '23년 12월 정부지급보증 발급, '24년 10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25년 상반기 컨설턴트 선정 예정, '26년 상세설계 실시·시공사 선정. 기존 1차 구간 연장 및 주요 교량 2개 연계 도로건설. 북사마르 지역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기반 구축 목적
- (정책·재원) EDCF 對필리핀 지원전략 및 포괄협정(FA)
 - 지원전략은 필리핀 국가개발계획('23~'28년) 연계. 핵심 분야는 연결성 강화(교통·도로·공항·철도)와 기후변화 대응(재난 대응·홍수 통제). '22~'26년 포괄협정 한도 30억 달러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분야) G2B, B2B 등

-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 투자, G2B, B2B 등 주요 협력 사례



성공 사례

- (개요)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사업
 - '24년 EDCF 승인, '25년 1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25년 7월 시공·감리 입찰 진행. 지원규모 9억 500만 달러
- 내용
 - 서호안 37.5km를 축으로 한 순환도로망 단계적 구축. 우선구간 7.9km(Lower Bicutan-Alabang) 도로 신설. 절차는 정부보증 → 차관계약 → 설계·감리·시공 입찰 순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대형 교통 인프라의 차관사업 추진 일정과 조달 절차의 구체화. 설계·감리·시공 분야의 국제 경쟁입찰 활용. 동 포괄협정 한도('22~'26년, 30억 달러) 내 후속 패키지 사업 연계 가능성

다. 공급망(자원개발)

* 공급망모니터링팀과 협업 중인 공급망 거점 무역관 및 공급망 현안 보유 국가 무역관의 경우 해당 내용을 부각하여 언급 요망

□ 정책·제도 동향

- RA 12253 서명·발효, 정부 지정 광물 보호구 내 총산출 5% 로열티·비보호구 마진연동 로열티(5단계) 및 초과이윤세 도입, 비카메라 최종조정에서 원광 수출금지 조항 삭제로 단기 수출 유연성 확보와 단계적 다운스트림 전환 병행 구조 확정
 - 가격 순환기 대응형 이익 기반 과세체계 확립, 재정수입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효과 확인

□ 프로젝트·양자협력 동향

- Nickel Asia-DMCI 간 니켈 제련 플랜트 타당성 조사 MOU 체결('25년 3월). 저품위 원광 활용을 포함한 국내 가공·부가가치 확대 지향
 - 후보지·공정기술·환경 기준 적합성 공동 검토, 산업·고용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적 기대 공식화
- USTDA 니켈·코발트 제련소 타당성 지원(민간 수원기업 대상) 진행, USAID 다운스트림 산업촉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추가지원 프로그램 가동
 - 기술·경제성·환경·사회 기준(ESG) 정합성 중심 평가 프레임 구성, 국제 규범 부합형 공급망 구축 지원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38
2. 진출전략	41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산업투자우선분야(SIPP), 세제법(CREATE), 신정부조달법(NGPA) 시행으로 산업·조세·조달 체계 개편
- 경제적 가치평가제도(MEARB) 도입 및 녹색조달 의무화로 품질·지속가능성 중심의 평가체계 확립
- 중앙은행(BSP)의 QR 결제 표준화(QR Ph) 및 오픈뱅킹(Open Banking) 확대 추진으로 제도적 정합성 제고
- 지방정부(LGU) 단위 인허가 및 세제 편차로 행정절차 복잡성 지속



경제(Economic)

- 전자·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55~60% 비중으로 지속, '25년 상반기 반등세 확인
- BBM(Build Better More)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및 다자개발은행(ADB)·양자자금 연계
- 환율·재정·대외의존 리스크



사회문화(Social)

- 젊은 인구구조와 스마트폰 보급률 80% 이상으로 모바일 금융 및 디지털 소비문화 정착
- ESG 및 친환경 가치 확산으로 녹색 인프라·그린빌딩 수요 확대
- 지역 간 소득 격차와 인프라 불균형으로 서비스 확산의 속도 차이 발생



기술(Technological)

- 반도체 설계·검증·전력전자·EMS 자동화 등 첨단 제조기술 수요 확대
- 실시간이체(Instapay), 오픈 API, 전자금융 사용자확인(e-KYC) 등 금융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강화
- 전자정부(e-Government), 스마트시티, 교통관제·재난관리·데이터센터 등 ICT 기반 행정 수요 증가
-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강화로 인증·보안체계 고도화 필요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인구 1억 2,000의 내수 잠재력 보유
- 영어 사용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 글로벌 서비스 수용성 및 디지털 확산 강화
- 정부 주도 산업·조달 개혁 병행
- 세계·조달 평가의 '지속가능성' 전환으로 고부가 기술 우대
- QR Ph·Instapay 등 지급 결제 인프라 표준화·상호운용성 진전

약점(Weakness)



- 진출 시 초기 정착비용(전력·물류·인허가 복잡성 등) 부담 증가
- 숙련 기술인력 및 현지 핵심 공정 역량 부족으로 첨단 제조 산업 발전 제약
- 지방정부(LGU) 단위 규제 편차 및 행정 지연 리스크 상존
- 핀테크 시장에서 빅테크 주도에 따른 신규 진입장벽 상승

기회(Opportunity)



- EMS 합작 및 SIPP 인센티브를 활용한 고부가 부품 현지화 공급망 편입 기회
- 전자지갑 보급률 80%대, GCash·Maya 대규모 사용자 기반에 대한 B2B2C 협력 기회
- NGPA·MEARB 도입으로 녹색조달·LCC 우위 기술의 공공시장 확장
- 재생에너지·전력전자·자동차전자·스마트시티 등 신수요 영역 동시 확대

위험(Threat)



- 미·중 기술분쟁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상존
- 전력공급 불안정·자연재해 등 기반 인프라 환경 리스크 상시화
- 수수료 가이드라인 변화 및 데이터·보안 규제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부담
- 공공입찰 일부 분야의 외국인 제한·자격요건 상향에 따른 참여비용 증가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EMS* 합작 및 산업투자우선분야(SIPP) 인센티브 결합을 통한 반도체·전력전자 현지화 가속 *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 전자지갑 은행·통신 3자 제휴 기반의 실시간 이체·오픈 API 연동 결제망 확장 등
- 신정부조달법(NGPA)·경제적 가치평가 제도(MEARB) 대응 녹색조달 패키지(저탄소 자재·고효율 설비·운영 유지보수) 제안
- 스마트시티·전자정부 수요와 연계한 제조·금융·공공 ICT 융합형 프로젝트 발굴



기술우위 정책
정합성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중심의
신수요 선점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미·중 기술분쟁 대응을 위한 아세안·중동·인도 다변 수출 포트폴리오 및 듀얼소싱 구축
- 전력·물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설비 도입 및 현지 공급망 내재화
- 데이터·보안 규제 강화 대응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전자신원확인(e-KYC)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 공공입찰 제한요건 대응을 위한 현지 컨소시엄·합작법인(JV) 구조 설계 및 자격요건 사전 인증



기술·제도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외리스크를
상쇄하는 분산·내재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인허가 행정 병목 완화를 위한 지방정부(LGU) 전문 컨설턴트·에이전트 네트워크 고도화
- 숙련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기술이전·공동교육·현지 대학 산학 프로그램 연계 인력양성
-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법(CREATE)·SIPP 인센티브·정책금융 결합형 투자 구조화
- 빅테크 중심 결제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B2B 백엔드 모듈·화이트라벨 솔루션 우회 진입



구조적 병목을 협력·
인력·금융으로
보완하는 속도전·
학습곡선 단축


WT 전략(방어/철수-위험 대응)

- 파일럿·롤링 확대·완전 상용화의 3단계 투자 로드맵 및 옵션형 계약 구조 도입 전략
- 환율·금리·원자재 가격변동 대응을 위한 헤지 프로그램 및 LCC(총소유비용) 기반 원가관리 체계 구축
- 재난·전력중단·사이버위험 대응을 위한 사업연속성계획(BCP)·다중 데이터센터·분산 전력 솔루션 도입



단계적 투자·리스크
헤지·거버넌스 강화로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어적 실행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전자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EMS 기업과 협업을 통한 생산거점 구축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 SIPP·CREATE 법을 활용한 세제 인센티브 극대화(법인세 4~7년 면제, 관세 면제 등) • 기술이전 및 인력역량 강화로 생산원가 절감·현지화를 제고 • 미·중 기술분쟁 대응을 위한 아세안·중동·인도 등 제3국 수출 다변화 추진
디지털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지갑 사업자·은행·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한 결제망 공유 및 서비스 현지화 추진 • 필리핀 소비자 사용패턴에 맞춘 UX 현지화 및 다언어 지원 • BSP 규제(전자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등)에 대응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B2B2C 방식의 간접진입 후 JV 설립 등 단계적 시장 확장 추진
정부조달(G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대형 공공사업 참여 및 리스크 분담 • 현지 건설사·엔지니어링사와 JV 구성, 인허가·노무관리 효율화 • 녹색조달 인증제품(저탄소 자재·고효율 설비 등)을 통한 입찰경쟁력 강화 • 전자정부·스마트시티·에너지효율 사업 중심으로 공공 프로젝트 진출 확대
EU-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중인 필리핀-EU FTA를 활용, 유망 수출 분야를 필리핀 생산거점화로 EU 시장에 진출(예 : 필리핀에 생산기지를 세워 전자제품·식품 등을 EU에 수출)

전략 ①

전자산업: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합작투자자 SIPP(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 인센티브를 통한 반도체·부품 공급망 거점화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 최근 필리핀 전자·반도체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5년 상반기 전자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추세. 특히 '25년 7월 전자제품 수출이 3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 6월에도 38억 9,000만 달러로 26.1% 증가세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 업계단체 SEIPI는 전자제품 위탁생산(EMS), 재생에너지용 전력전자 부품, 소비자 가전 부품 수요 확대를 주요 성장동력으로 지목.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의 견조한 수요가 필리핀 전자산업을 견인
 - * 필리핀 정부는 반도체 설계센터 및 웨이퍼 공정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25년 초 마르코스 대통령이 반도체 업계 대상 특화 인센티브 마련을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투자 유도정책 강화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 기업은 반도체 설계·검증 기술과 첨단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필리핀 전자산업 고도화에 기여 가능
 - * 필리핀 SIPP('25~'27년 전략투자 우선 분야)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초기 투자비용 절감 가능. 현지 EMS 기업과 합작 투자(JV)를 통한 고부가 부품 현지 생산·조달 기반 구축 및 글로벌 공급망 편입 확대. SIPP 상 전자·반도체 산업의 최우선 지정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기대

□ 현지 동향

- 수출 주력 산업으로서의 위상
 - 전자·반도체 산업이 필리핀 총 수출의 55%~60%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 '24년 전자제품 수출은 390억 8,000만 달러로 전체의 53.4%를 차지, '25년 들어 반등세 확대
- 품목별 추이
 - 전자 수출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집적회로(IC) 제품으로 구성. 반도체 수출 증가로 '25년 상반기 기준 전자 부문 전년 대비 +24.5% 성장
 - 전자산업이 국가 수출을 견인하며 정부는 수출 기반 다변화 및 산업클러스터 확충 추진
- 성장 분야
 - 소비자 가전, 재생에너지, 자동차 전장 분야의 수요 확대가 성장요인으로 작용. 가전제품 회복, 태양광·배터리 등 전력전자 수요 증가,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 확대
- 글로벌 협력
 - 현지 기업의 해외 협력 확대 추세. 대표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인 아이오닉스(Ionics EMS)는 대만 전자기업 협회와 교류 확대, 퍼스트필렉(First Philec) 등 로컬 기업은 한국·대만 업체와 기술이전 및 공급망 연계 추진
 - 라구나·바탕가스 산업단지 중심의 한국·대만 투자 확대 및 기술 역량 강화 추진

□ 유망 품목

- 반도체 설계·검증 서비스 및 전력전자 부품
 - 정부가 유치 중인 반도체 설계·검증 서비스, 전력변환 장치 분야 진출 유망.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 테스트 기술을 활용한 협업 모델 구축
 - 재생에너지용 인버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스마트가전 부품
 - * HS8542(집적회로), HS8504(전력변환기) 등 한국 기업 강점 분야와 직결

□ 진출전략

- 역내 공급망 거점화
 - 필리핀을 아세안 전자·반도체 제조거점으로 육성. 현지 EMS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한 생산기반 구축 및 현지 조달망 활용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추진
- 세제 인센티브 극대화
 - SIPP 및 CREATE 법을 활용한 세제 혜택 확보. 법인세 4~7년 면제, 관세 면제, 전력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극대화. 첨단 제조(Tier 3) 지정 시 7년 면세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 역내 공급망 거점화
 - JV 기반의 기술이전 및 인력역량 강화. 한국 첨단제조기술과 필리핀 인건비 경쟁력 결합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현지화를 제고. 지역 내 수출 허브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통상 리스크 분산
 - 미·중 기술분쟁 등 대외 리스크에 대비한 생산거점 분산. 필리핀 생산품의 아세안·중동·인도 등 제3국 수출 다변화를 통한 통상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 ②

디지털 결제 : 전자지갑·은행 제휴를 통한 핀테크 서비스 현지화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 필리핀 디지털 결제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금융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 진행
 - * '24년 기준 소매결제 건수의 57.4%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19년 14% 대비 약 4배 이상 확대. '25년에는 거래 금액 기준 60%에 근접하며, 필리핀이 동남아 주요 핀테크 혁신시장으로 부상
 - * 전자지갑(e-wallet) 사용의 일상화로 '23년부터 이용자 급증세 지속. '25년 대표 모바일 지갑 서비스 GCash는 8,000만 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 기반 확보, Maya, GrabPay, ShopeePay 등 주요 플랫폼도 수천만 단위의 사용자 기반 구축
 - * 성인 인구 대비 전자지갑 보급률 80%를 상회하며 금융포용성 확대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모바일 결제 및 디지털 뱅킹 기술을 축적한 국가로서, 결제 인프라·보안·운영 노하우 전반에 걸친 경쟁력 보유
 - * 국내 핀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송금, 인증보안, UI/UX 분야 경쟁력 기반으로 필리핀 현지화 추진에 유리.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및 생체인증 기반 보안모듈 기술을 현지 전자지갑 서비스에 적용 가능

□ 현지 동향

- 모바일 금융의 일상화
 - GCash, Maya 등 주요 전자지갑 플랫폼이 필리핀 국민의 일상 결제수단으로 정착. 송금, 공과금 납부, 온라인 쇼핑, 차량 호출 등 다기능 결제생태계 형성
 - 시중은행들도 HelloMoney(AUB은행) 등 자체 e지갑 출시 및 제휴 확대를 통해 고객 접점 강화
- 은행-핀테크 제휴 확대
 - 은행과 전자지갑 간 상호보완적 서비스 확대. 전자지갑 사업자는 은행 계좌 연동을 통해 ATM 입출금, 예금·대출 기능 제공. 은행은 핀테크 고객 접근성을 활용해 보험, 투자 등 번들 서비스 확장
 - Maya Bank는 전자지갑 Maya와 통합된 디지털은행 서비스 제공, GCash는 다수 은행과 연계하여 실시간 송금·결제망 공유. 은행-핀테크 협력을 통한 포용금융 확대
- 정부의 지원과 규제 방향
 -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QR 결제 표준화(QR Ph), 인스타페이(Instapay) 등 지급 결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 '25년 상반기 기준 Instapay 월 거래량이 전년 대비 226.9% 급증. 정부는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핀테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재래시장 QR결제 확산 추진
 - * '25년 도입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무료서비스의 유료화 진행 등 시장 자율과 소비자보호 간 균형정책 조정

- 시장 경쟁과 투자 환경

- 핀테크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외국계 자본 유입 증가. 동남아 주요 전자지갑 기업들의 필리핀 진출 확대 및 현지 조인트벤처 설립 증가
- 빅테크의 금융진출, 암호자산 기반 송금 등 신규 경쟁요인 등장. 사이버보안, e-KYC, 데이터분석 등 관련 기술 수요 확대. 한국 기업의 기술력 기반 시장 진입 기회 확대

□ 유망 품목

- 전자지갑 플랫폼 및 통합솔루션

- 다수 은행·전자지갑 계좌를 통합관리하는 결제 앱, 온·오프라인 QR결제 시스템, 소상공인용 모바일 POS 등 수요 확대
- 한국 기업의 트랜잭션 처리기술, UI/UX 설계역량을 기반으로 한 현지화 추진

- बैं킹 API 및 오픈뱅킹 기술

- 오픈 API 기반 계좌조화·이체·결제 기능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 수요 확대, 한국의 공동 API 표준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출·컨설팅 기회 존재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모듈식 बैं킹시스템, 클라우드 बैं킹솔루션 등 디지털 전환 대응기술 수요 증가

- 핀테크 보안 및 인증기술

- 생체인증(FIDO), 1회용 비밀번호(OTP), 이상거래탐지(FDS) 등 고급 보안기술의 적용 수요 확대
- 모바일 앱 보안, 단말기 보안, 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솔루션의 현지 공급 확대, 전자금융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지속적 수요 확산

- 핀테크 보안 및 인증기술

- 통신사 데이터·전자지갑 거래 내역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솔루션, 소액대출·보험 연계플랫폼 등 금융포용형 서비스 확산
- '25년 9월 Maya 디지털은행이 싱가포르계 핀테크와 협력해 2억 7,500만 페소 규모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 도입

□ 진출전략

- 현지 파트너십 우선 전략

- 전자지갑 사업자·은행·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한 결제망 공유 및 서비스 현지화 추진
- 한국 결제기술 기업이 필리핀 은행연합과 MOU 체결 후 공동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또는 현지 통신사와 협력한 선불형 소액대출 서비스 도입

- 현지화와 사용자경험(UX) 개선
 - 필리핀 소비자 사용패턴에 맞춘 앱 설계 및 언어·문화 현지화 추진
 - 낮은 데이터 환경 대응 경량앱, 자영업자용 현지통화 회계기능, 타갈로그어 지원 인터페이스 등 로컬 UX 강화
- 규제 대응 및 보안 강화
 - 필리핀 BSP의 전자금융 지침,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25년 온라인도박 차단 정책 시행에 따른 서비스 기능 조정 및 규제 변화 대응체계 마련
 - AML/CFT(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라이선스 취득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
- 단계적 시장 진입
 - B2B2C 모델을 통한 간접진입, 현지 금융기관 대상 백엔드 기술 공급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으로 시장 적응 추진
 - 현지 레퍼런스 확보 후 자체 앱 출시 및 JV 설립 등으로 단계적 수익모델 확장
 - 현지 금융·통신·결제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한 핀테크 산업 내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

전략 ③

정부조달(GPP) : 컨소시엄 기반 참여와 녹색조달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 '25.2.11. 신정부조달법(NGPA, RA 12009) 시행규칙(IRR) 발효로 20여 년 만의 조달체계 전면 개편
 - * 주요 원칙은 투명성·경쟁성·효율성·비례성·지속가능성이며, 전 과정 평가 사전과정비용(LCA)·수명주기비용(LCC) 개념이 반영
 - * 마르코스 정부가 '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 하에 207개 핵심 인프라사업(P10조 4,500억 규모) 추진. 철도·도로·발전 등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차관지원 연계
 - * 한-필 정상회담 시 2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파나이-구마라스-네그로스 연륙교 등 사업에 한국 자금 투입
 - * 국제적 요구에 부응해 녹색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기준 강화, 신정부조달법에 환경·사회적 영향평가 의무화 및 경제적 가치평가(MEARB) 도입을 통한 가격 중심 평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 평가체제로 전환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 기업은 고효율·친환경 제품 경쟁력이 높아 LCC 평가에서 총소유비용(TCO) 우위 확보 가능
 -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PPP(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 운영 경험과 프로젝트 관리·납기·품질 준수 역량을 통한 우위 확보
 - * 전자정부(e-Government), 정보통신기술(ICT) 등 공공 IT 분야의 풍부한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필리핀 행정혁신 사업 진출 확대 가능
 - * 탄소저감형 시멘트, 에너지효율 건축자재, 스마트그리드, 전기버스 등 친환경 기술과 녹색조달 기준 부합 제품을 통한 경쟁력 제고

□ 현지 동향

- 공공조달 제도 변화
 - '25년 신정부조달법 시행으로 조달환경 구조적 개편, 최저가 중심의 기존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평가(MEARB) 기준 도입을 통한 품질·유지보수비용·환경영향 통합평가체계 전환
 - PhilGEPS 전자조달 플랫폼 활성화로 전자입찰·공고 투명성 강화, 해외 기업의 정보 접근성 개선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
- 녹색조달 강화
 - 정부조달 시 환경라벨, 친환경 인증요건 반영, 정부 차량 조달 시 연비 기준 충족 차량만 입찰 허용, 건축사업 시 친환경 자재 사용계획 평가항목 반영
 - '25년 3월 녹색공공조달 로드맵 승인, 시범사업 시행 및 산업통상부(DTI) 산하 전담조직의 기업대상 교육 실시

• 대형 프로젝트 추진 상황

- 현재 Flagship 인프라사업의 다년도 추진 지속 및 일부 지연 발생에도 정부의 완수 의지 유지
- 철도(메트로 마닐라 지하철, 남북통근철도), 공항(New Manila Int'l Airport), 수자원(메트로마닐라 상수도), 신도시(클락 뉴시티) 등 주요사업이 진행 중
- ADB, 일본, 중국 등 다자·양자 자금 연계로 프로젝트 진행 안정화 및 한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채널을 통한 인프라 협력 확대

□ 유망 품목

• 지속가능 인프라 및 에너지사업

- 재생에너지·친환경 교통·에너지효율 건축 등 지속가능 인프라 분야 유망, 정부의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 목표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설비,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진출기회 확대
- 전기버스, 철도 전철화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사업참여 확대, 녹색조달 평가 시 고득점이 가능한 기술군으로 분류

• 스마트시티 및 행정 IT사업

- 정부의 전자정부(e-Government)·스마트시티 구축 관심 증대. 교통관제, 치안CCTV, 재난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정부 데이터센터, 행정정보시스템 현대화 사업 수요 증가
- AI·빅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디지털 신원증명시스템 등 첨단 분야 신규기회 확대, 한국의 전자정부(KONEPS), 통관·세정시스템 등 수출사례를 통한 높은 기술 신뢰도 확보

•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SOC)사업

- 도시화 진전으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홍수방지 등 환경 인프라 수요 증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충족 기술, 폐기물 소각발전 기술, 수처리 기술 등의 경쟁력 확보
- 환경영향평가 컨설팅 및 기술수출형 사업모델 확장, 농촌 전기·통신망 구축 등 포용적 인프라 사업도 KOICA 등과 연계 추진

• 친환경 자재 및 설비

- 저탄소 건설자재 및 에너지 절약설비의 공공수요 확대, 한국산 고강도 저탄소 시멘트, 친환경 아스팔트, 단열재 등 기술점수 측면 이점 확보
- 공공건물의 LED조명,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태양광 패널 설치 등 그린빌딩 요소 의무화에 따른 제품 수출 기회 확대, 녹색조달 인증제품 보유를 통한 품질 친환경 동시 어필

□ 진출전략

- 컨소시엄 구성으로 역량 극대화
 - 복수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대형공공사업 참여, 프로젝트 규모 및 분야별로 설계사·시공사·금융기관·운영사 간 협력 구조 구축
 - 리스크 분담 및 수행능력·신인도 제고를 통한 입찰경쟁력 강화
 - 철도사업의 경우 건설사·차량제조사·플랜트사의 공동입찰, 발전소사업의 경우 EPC사·기자재업체·수출입은행의 협력 형태 추진
- 현지 파트너 및 공급망 활용
 - 현지 건설사·엔지니어링사와 JV 구성으로 현지 인력·자재 사용 요건 충족, 인허가 취득 및 노무관리 측면의 효율성 확보
 - 현지 에이전트·컨설턴트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 및 관공서 소통 강화 및 파트너 선정 시 재무건전성 및 윤리준수 여부 검증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중전압 변압기·개폐장치

HS CODE : 8504.23/8504.33(변압기), 8535/8536(스위치기어)

- 선정사유**
- NGCP 변전·선로 확장 승인 지속, '25년 ERC가 Aklan 변전소 등 NGCP 설비투자 승인 공표. 송배전망 병목 해소 및 과부하 대응 수요 확대 국면 형성. 조달 제도는 NGPA·IRR로 LCC/LCA·전자조달 강화 추세 확인
- 경쟁동향**
- 글로벌 메이저(ABB·Hitachi Energy 등)와 중국·ASEAN계 가격경쟁 심화 국면. 현지 조립/리퍼브 업체와 EPC 일괄 수주 결합 사례 다수 관찰됨
- 진출방안**
- NGPA(IRR) 준수 전제, 현지 EPC·유틸리티와 컨소시엄 방식 참여. PhilGEPS 등록 및 LCC(수명 주기비용) 근거의 효율·내환경성 데이터로 기술점수 극대화. 친환경 절연유·손실저감형 설계를 제안하여 GPP 가점 확보

스마트 전력계량기(AMI Meter) 및 통신모듈

HS CODE : 9028.30(전력계량기), 9030류(계측), 8537(패널/제어반, AMI 집합장치)

- 선정사유**
- Meralco AMI 3.27백만대 '25~'29년 단계 도입 계획, 스마트미터 단가 절감 추진 및 규제 결정 대기 상황. 전력요금 투명화·수요관리·손실감축 목적의 대량 수요 형성
- 경쟁동향**
- 글로벌 계량기·AMI 솔루션 벤더(유럽·중국·인도계) 입찰 경험 축적. 통신모듈·MDMS·보안인증 영역에서 차별화 여지 존재
- 진출방안**
- 전력배전사+통신사 3자 협력, 계량기+통신모듈+MDMS 번들 제안으로 TCO 우위 확보. ERC·BSP의 보안·데이터 기준 정합성 사전 인증 확보

DC 고속급속기·멀티포트 완속기(EV 충전기) 및 부품

HS CODE : 8504.40(정류기/컨버터), 8537(충전 제어반)

- 선정사유**
- CREVI 목표: '28년 7,000~7,300기 충전 포인트. '25년 현재 누적 1,000기 근접으로 보급 확대 초기 국면. 도심 상업시설·고속도로 거점 중심의 설치 수요 확대
- 경쟁동향**
- 미·EU·중 글로벌 충전기 혼재, EPC+운영(O&M)+결제 연동 패키지 선호
- 진출방안**
- 부동산 디벨로퍼·EPC와 JV, 멀티포트 DC+에너지관리(EMS)+결제 연동 패키지 제안. DOE 인증·안전규정 선확보로 납기·검수 리스크 축소. 전자지갑(필리핀)과 결제 API 연동으로 수익화 모델 확립

데이터센터용 서버·스토리지·UPS·정밀냉각

HS CODE : 8471.80(서버), 8471.70(스토리지), 8504.40(UPS), 8418.69(정밀냉각)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H 데이터센터 전력/코로케이션 시장 확대. '25년 DC 파워 시장 4억 6,300만 달러 → '30년 8억 3,400만 달러 전망(CAGR 12.5% 내외).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코로케이션 기업의 M&A·진입 가속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IT·전력·냉각 메이저 주도. 에너지효율·PUE 개선·가용성(UPS N+1) 기준충족 여부가 수주 결정 변수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SI·통신사·디벨로퍼 컨소시엄, 서버·스토리지+UPS+CRAC 일괄 패키지로 NGPA의 LCC·GPP 기준 충족 데이터 제시. 사이버보안/인증 선적용으로 금융·공공 DC 수요 대응 |

막여과·RO 수처리 설비 및 모듈(정수·재이용 포함)

HS CODE : 8421.21/8421.29(여과·정수장치), 8421.99(부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하수 인프라 장기 확장. MWSS 규제하 상수·하수 프로젝트 입찰 지속, 양대 컨세션(Manila Water·Maynilad) 장기 운영 연장 및 IPO 준비로 설비투자 모멘텀 강화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EU 막소재 고급시장 우위, 중국계 패키지 플랜트 가격 공세. O&M·성능보증 요건 충족 레퍼런스가 핵심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수도사업자·컨세션과 EPC 컨소시엄, 막모듈+펌프+제어반 통합 패키지 제안. NGPA·IRR의 LCC·녹색조달 요건 반영, 약품·에너지 사용 절감 데이터로 기술점수 극대화 |

도로 교통관리·신호제어(ITS) 장비·관제시스템

HS CODE : 8530(도로/신호 통제 장비), 8526/8529(감시·레이더/부품), 8531(경보장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GPA·IRR로 전자조달·표준문서 확산, LGU 단위 교통혼잡 완화 사업 확대. BRT/버스전용차로·스마트신호 프로젝트의 센서·제어기·관제SW 수요 동반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일본 ITS 솔루션 기술우위, 중국계 보급형 확산. 설치·A/S 결합한 현지 SI 주도형 제안 선호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SI·통신사와 분담형 컨소시엄, 신호제어기+교차로 SW+센서 통합 패키지로 제안. LCC 기반 혼합비용 절감 효과 계량화, ODA·PhilGEPS 병행으로 지방 입찰 접근성 제고 |



전자지갑·은행 연동 인수·정산·QR 가맹관리

- 선정사유**
 - 디지털 결제 비중이 급증함. 가맹모집·리스크관리·정산 수요가 확대됨
- 경쟁동향**
 - GCash·Maya가 주도함. 리스크 엔진·AML/KYC에서 기술 격차가 존재함
- 진출방안**
 - 전자지갑·은행과 공동 인수서비스를 출시함. API 게이트웨이·정산엔진·리스크 모듈을 번들로 제안함. 규제·보안인증을 선충족함

DC 턴키(EPC·시운전·운영) + 클라우드 운영관리

- 선정사유**
 - 데이터센터 수요가 고성장함. 전력·냉각·보안 일괄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
- 경쟁동향**
 - 글로벌 IT·전력 메이저가 EPC+O&M 패키지를 제안함. PUE·보안인증이 핵심 경쟁요소임
- 진출방안**
 - 통신사·디벨로퍼와 컨소시엄을 구성함. 서버·스토리지·UPS·정밀냉각을 통합 제안함. SLA·보안·규제준수를 포함한 DCaaS로 공공·금융을 공략함

스마트미터·MDMS·통신망 통합 및 운영

- 선정사유**
 - 대규모 AMI 보급 계획이 확정됨. 요금정확도·손실감축 목적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
- 경쟁동향**
 - 글로벌 벤더가 다수 참여함. 통신모듈 안정성과 사이버보안이 핵심
- 진출방안**
 - 배전사·통신사와 3자 협력을 구성함. 미터·통신·MDMS 번들을 제안함. 파일럿 후 양산 로드맵을 제시함



'26년 필리핀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통상	한-필 FTA 설명회 및 필리핀 투자진출 설명회	4월 / 마닐라
프로젝트	한-필 AI시티·스마트팜 시장개척 로드쇼	6월 / 마닐라
프로젝트	한-필 인프라 협력 포럼	10월 / 마닐라
소비재	필리핀 유통망 입점지원 사업	연간 / 마닐라
통상	경영지원세미나	10월 / 마닐라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SEAN Summit	미정	연2회(상하반기)
ASEAN 외교장관회의(AMM)	미정	연2회(상하반기)
ASEAN 경제장관회의(AEM)	미정	
EITI Global Conference	6월	
ASEAN Tourism Forum	1월	

주요 경제·통상 일정

무역협정	일시(잠정)	비고
EU-필리핀 FTA	협상 진행중	2026년 체결 목표
RECP	회원국 확대(스리랑카, 칠레, 홍콩 등) 논의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ProPak Philippines	2월	포장기계
Manila Auto Show	4월	자동차·부품
PhilEnergy Philippines	4월	신재생에너지
Franchise Asia Philippines	4월	프랜차이즈
Philbex Davao	5월	건설기자재
Solar & Storage Live Philippines	5월	신재생에너지
Cebucon Build Expo	6월	건설기자재
Cosmobeaute Philippines	6월	화장품
PHILMARINE(Naval Defense Philippines)	6월	방위
Oil & Gas Philippines	6월	오일가스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Offshowre Wind Asia	6월	해상풍력
Halal Expo Philippines	7월	할랄
ILDEX Philippines	8월	축산/낙농
WOFEX(World Food Expo)	8월	식품
PhilMedical	9월	의료기기
PHIL DENTAL	9월	의료기기
EMAX Philippines(Electronics Manufacturing Expo)	10월	전기전자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심자용	차장	마닐라무역관	+63-2-8894-4084	jayong@kotra.or.kr
2	형민혁	Specilalisat	마닐라무역관	+63-2-8894-4084	hyeong@kotra.or.kr

2026 필리핀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45-4 (95320)